

야고보 1-2
Tape #C2628
By Chuck Smith

Let's turn to James chapter one. James introduces himself as the bondslave of God and of Jesus Christ. It's a title that most of the apostles delighted to take. Renouncing any claim for any rights, turning their lives over totally to God and to the lordship of Jesus Christ, they did not consider their lives their own. They were bereft of ambitions in a personal way. They lived solely to serve the Lord and to please Him.

우리 모두 다같이 야고보서 1장을 봅시다. 야고보는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합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사도들이 자신들을 소개할 때 즐겨 사용한 명칭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부인하여 삶을 온전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맡겨서 자신들의 생명을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개인적인 야망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순전히 주님만을 섬기며 그 분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살았습니다.

A bondslave was just that, one who lived completely for his master. He had no rights of ownership, could not hold title to anything, everything he had belonged to his master. He was there only to serve.

James, a bondslave of God and of the Lord Jesus Christ, to the twelve tribes which are scattered abroad (1:1).

‘종’은 말 그대로 오직 그의 주인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종은 아무런 소유권이 없으며 어떠한 문서도 가질수 없었으며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모두 주인에게 속했고 그는 오직 주인을 섬기기 위해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 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1:1).

Not to the ten lost tribes for they were not and they have not been. They are the twelve tribes that are scattered abroad. This is before the destruction of Jerusalem by Titus. In fact, they think that James is probably one of the earliest epistles written. It pre-dates the Pauline epistles. And so there's some people who say, "Well, James wrote his epistle to counteract Paul's teaching on salvation through grace and all." Not so, James wrote his epistle before Paul wrote his. So if he wrote it to counteract Paul's epistles, it was a pretty interesting document in that he wrote his epistle probably five years before Paul wrote his first epistle; two years at least.

전혀 있지도 않고 있지도 않았던 잃은 10 지파에게 보내는게 아닙니다. 그들은 사방으로 흩어진 12 지파입니다. 이것은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입니다. 사실상, 사람들은 야고보서가 아마도 가장 일찍 쓰여진 서신서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야고보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보다 더 먼저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마, 야고보는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말하는 바울의 가르침에 반박하기 위해서 이런 서신서를 썼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바울이 그의 서신들을 쓰기 전에 이미 그의 서신을 썼습니다. 만약에 야고보가 바울의 서신의 내용을 반박하기 위해서 서신서를 썼다고 한다면, 이것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일뿐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는 분명히 사도 바울이 그의 첫번째 서신을 쓰기 무려 5년전에 적어도 2년 전에 야고보서를 썼기 때문입니다.

So, James addressing the twelve tribes scattered abroad. His greeting. He uses the typical Greek greeting here which actually is the same word for grace.

My brethren count it all joy when you fall into diverse temptations (1:2);

그래서 야고보는 흩어진 12지파에게 문안한다고 말합니다. 그가 여기에 사용하는 전형적인 헬라이어 인사는 실제로 '은혜' 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1:2)

We are constantly faced with temptations. It's just a part of life. And in each temptation there has to be a decision on our part, whether or not we are going to walk in the flesh or to walk in the Spirit. For temptation is any situation that would draw me into the flesh and into a fleshly reaction. I have to choose. Will I walk after the flesh? Will I walk after the Spirit? And we realize that there are all kinds of temptation. They come from all directions.

우리는 늘 시험에 직면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활의 일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개개의 시험속에서 우리는 성령을 좇아서 행할 것인가 아니면 그저 육신을 좇아서 행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결정이 있어야합니다.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육신에 따라 행동하도록 이끄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할 것인가 아니면 성령을 따라서 나아갈 것인지를 선택해야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의 시험이 온 사방에서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As I shared this morning, driving I think can be one of the greatest temptations in the world to get in the flesh. It's interesting we were recently in Korea and these people are an extremely gracious, wonderful people. They were so kind and gracious to us. But when they get in a car, they're totally different. I mean, I owe a great deal of my spiritual development to riding in a car in Seoul, Korea. I really learned to pray. The temptation of responding or reacting in the flesh to the foolish moves of other drivers.

오늘 아침에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운전하는 것이 육신적으로 되기 쉬운 가장 큰 시험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우리는 한국에 다녀왔는데 한국 사람들은 아주 상냥하고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대단히 친절하고 상냥스러웠지만 그들이 일단 차를 타기만 하면,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 버리더군요. 그러니까 제 말은 서울에서 차를 한번 탄 것이 제 영적 생활에 아주 큰 도움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나는 정말 그것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을 배었습니다. 다른 운전사들이 난폭한 운전을 할 때 나도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맞대응하지 않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Temptations that come because of our possessions. Something happening to my possession because we try to possess our possessions. We so often find ourselves angered, responding in the flesh because something has happened to my prized possession.

시험은 바로 우리의 재산 때문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재산을 소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물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귀하게 여기는 소유물에 어떤 일이 생겼으므로 화를 내고 육신적인 반응을 보이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Temptations that come because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emptations that come from so many areas. Divers temptations where I am prone to respond after the flesh. I want to respond after the flesh.

때로는 시험이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면 시험은 여러 분야에서 일어납니다. 많은 시험이 올때 나는 육신을 좇아 반응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육신을 따라 반응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Now we are told to *count it all joy*, a strange response to temptations. Usually I don't like to be tested. I would rather that everything went very smoothly. I would rather that no one got in my way. I would rather that no one cross me. No one cut in front of me. That I would much rather see. But it doesn't happen that way. Life isn't that way. Life is filled with disappointments. There are always those that are going crosscurrent to you. There will always be those who will be irritants to you. An irritating situation. I cannot rule and order my life, as I would have it.

야고보는 우리에게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데 시험에 대한 생각과 다른 반응입니다.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내 앞에 끼어 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걸 바라지만 일이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쉽지 않으며 실망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을 가로 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항상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괴로운 상황에서 내 뜻대로 나의 삶을 다스리거나 정돈 할수는 없습니다.

If I did, I would become so spoiled and rotten and pompous. Wanting everybody to bow. Wanting everybody to yield. Wanting everybody to submit. Doesn't happen that way. And so for my growth, for my development, temptation is necessary. It's a part of the testing and that's what we are told here.

the trying of our faith (1:3)

만일 내가 내 마음대로 했더라면, 나는 분명히 아주 방탕하고, 부패되었고 거만한 사람이 되어 모든 사람이 굽신거리고 모든 사람이 양보하며 모든 사람이 복종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의 성장과정이나 발전과정을 볼때 시험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유혹은 시험의 한 부분이라고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믿음의 시련(1:3)

The another word for that is the proving of our faith. You say you believe God? Hey, big deal. Devils do, too. The proving of your faith.

Now the proving of the faith is never really for God's benefit. God knows the truth about you the whole while.

믿음의 시련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대수롭지도 않은걸. 귀신도 믿는다고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십시오.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벌써 여러분에 대한 진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Someone told me the other day, "Oh, I'm afraid I've disappointed God." I said, "No, no, no, it's impossible to disappoint God. You've disappointed yourself. God knew it all the time. You didn't and so you disappointed yourself. You didn't disappoint God. He knew that was there. He knew that that would be your response. He wasn't at all disappointed."

그저께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나는 하나님을 실망시킨것 같아서 염려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절대로 그렇지 않아.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건 불가능한거야. 당신 자신을 실망시킨 것 뿐이요. 하나님은 항상 알고 계셨고 당신은 하나님을 실망 시킨게 아니라 당신 자신을 실망 시킨 것이요.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일이 거기서 일어날 것도 다 아셨어요. 그것이 당신의 반응일것임을 벌써 알고 계셨죠. 하나님은 결코 실망하시지 않았습시다.”

We disappoint ourselves because we oftentimes think we are further down the road than we really are. I thought I was over that hump. I thought I had conquered that area. And here comes the situation where I'm tested and golly, I blow it. You know I'm so disappointed. Why did I say that? Why did I do that? But I shouldn't feel condemned like "Oh, I've let God down," or "I disappointed God." No, God knew it the whole while. But I needed to know it. And so God allowed the situation so I could find it out. And so temptation, something that is common to all men. *Count it all joy* because temptation is the testing of our faith and this *testing of our faith* develops patience, or

works patience (1:3).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실망시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끔씩 우리가 실제로 처해있는 것보다 더 더 낮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게 문제가 되지 않는 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이 그 부분은 정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그런 상황이 닥쳐와 시험을 당했을 때 나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아시겠지만 나는 대단히 실망했습니다. 왜 그걸 말했느냐구요? 왜 그렇게 했느냐구요? 그러나 “오,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켰어” 라고 느끼지 말아야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걸 알아야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허용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것을 발견하게 하신 것입니다. 시험은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유혹은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며 이 “믿음의 시련” 이 인내를 만들어 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1:3).

What a needed quality, patience. So often our failure is in waiting upon God. And that is true throughout the Bible. So many within the Scriptures got into trouble because they didn't wait upon God. They failed in the test of faith in areas of their life.

인내는 우리의 인품에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흔히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경의 전체를 볼때 그것은 진실입니다. 성경속에서 많은 인물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인내하면서 기다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들은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 그들은 실패하였습니다.

Abraham though he passed the test magnificently with Isaac, yet failed in the birth of Isaac. When God promised to give him a son. He wasn't patient. Sarah finally

came and said, oh, come on, Abraham; it's not going to work. You take my handmaid and you have a son by her. And when the child is born, I'll take it on my lap and it will be as my child. But I'm just not going to be able to bear a child, Abraham. Now let's be reasonable about this. Failure of faith. They didn't wait upon God until God responded or answered. The testing of our faith develops patience.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하는 시험에서는 믿음으로 승리했지만, 아들 이삭이 태어나기까지는 그 역시 실패를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참고 인내하지 않았습니다. 사라는 참다 못해서 아브라함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내가 아기를 가지지 못하니, 내 몸종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으시지요. 아이가 태어나면 내 무릎에 놓고서 내가 낳은 아이처럼 생각하고 키우겠습니다. 나는 아기를 갖고 싶어도 가지지 못하니 이 점을 깊이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실패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전까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But, like Abraham, whenever I do not wait upon God, I'm always botching things up. Creating problems for myself. And so it's important that I'm tested. That I learn to wait upon God. Knowing this, that *the trying of your faith works patience.*

But let patience have her complete work that you might be fully mature (1:4),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할 때 마다, 나는 항상 스스로 일을 망쳐놓습니다. 내가 문제를 만들어 놓는 셈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의 시련을 겪는 것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이루어내는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1:4)

And that's the whole purpose of God is to bring you into a maturity. That we quit acting and responding like little children to the disappointments of life. That we quit throwing our little tantrums at God, stomping our foot and walking away and saying, I'm not going to talk to you anymore. But that we grow up and become mature.

complete, wanting nothing. Now, if any of you lack in wisdom (1:4,5),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전체적인 목적은 여러분들이 성숙하게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실망에 대해서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고 반응하는 것을 그치게되며 우리가 하나님에게 화를 내고 발을 동동굴리면서 걸어나가서 하는 말이 "더 이상 당신에게 말 안할꺼요" 라는 것을 중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는 자라고 성숙해져야합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1:4,5)

I don't suppose that's addressed to this crowd tonight. We always know exactly what to do, don't we? But if there happens to be one out there that lacks in wisdom,

let him ask of God, who gives to all men liberally (1:5),

나는 그것이 오늘밤에 여러분들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무엇을 해야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1:5);

Or freely. What a glorious promise this is. How many times in coming to God do I come on the basis of this verse. I don't know what to do. There are so many things in life that I really don't know what is the right way. I lack wisdom. And it's wonderful to be able to come to God and ask God for wisdom and realize that He'll give to all men freely.

and He upbraids not (1:5);

후히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약속입니까!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모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내 삶에서 어떤 것이 옳은 방법인지 정말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게 지혜가 부족한 탓이죠. 그래서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실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1:5);

He's not going to say, "Oh, come on, stupid thing, what's the matter with you? Can't you see this is what." You know He doesn't upbraid you when you come for wisdom. He doesn't give you a hassle or bad time. But He gives to us freely.

Upbraids not and it shall be given him (1:5).

하나님은 “이런 어리석은 것 같으니, 문제가 뭐냐? 너는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지 보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지혜를 구하기위해서 그에게 올때 여러분들을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괴롭히거나 어려움을 주실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리라 (1:5)

Glorious promise. If I need wisdom, I can ask of God. Now when I ask, it's important that I,

ask in faith, nothing wavering. For he that wavers is like the wave of the sea driven with the wind and tossed (1:6).

영광스러운 약속입니다. 만약 내가 지혜가 필요하면 나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혜를 구할 때 반드시 다음과 같이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1:6).

A stormy sea. The waves seem to be rolling back and forth. Tossed by the wind. So is the man who doubts. Tossed to and fro, lacking stability.

For let not that man think that he shall receive any thing of the Lord. For he is a double minded man, unstable in all his ways (1:7,8).

요동하는 바다에서는 그 파도가 위아래로, 앞뒤로 몰아칩니다. 폭풍에 의해서 이리 저리 흔들립니다. 의심하는 사람도 역시 이리합니다. 안정성이 없어 앞과 뒤로 밀려 다닙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1:7,8).

My commitment to God needs to be a complete commitment. I'm not to hold things out and then pull them back. I'm not to offer God my life and then take it back. I'm not really to ask for wisdom and then do my own thing. It isn't asking for wisdom and then making up my mind whether or not I want to follow it. Asking God to reveal His will so I can determine whether or not I want to yield to it. I must make a decision. I must make a commitment. I must determine that I'm going to just commit my life to the Lord's keeping, and then just believe the Lord to keep it. And when things aren't going quite right, or I can't quite understand what's happening, don't say, "Oh, I better take over here now, you know, I don't know what the Lord is doing." And this is so common among us, this wavering bit. Not really for sure. Offering and then taking back. You become unstable in everything.

하나님께 하는 나의 헌신은 온전한 헌신이어야합니다. 약속을 했다가 취소하면 안됩니다.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렸다가 다시 내가 취해서는 안됩니다. 지혜를 구했다가 내 마음대로하면 그것은 지혜를 구한것이 아닙니다. 지혜를 구한 후에 그것을 따를지를 내가 결정하면 그것은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달라고 구한 다음 내가 결정해야하고 헌신하는 것도 내가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지켜주실것을 믿으려고 합니다. 일이 순조롭게 되지 않을 때 혹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수 없을 때 "오, 이젠 내가 맡아야지. 주님이 하시는 일을 알수 없단 말이야"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흔한 일로서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마음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것입니다. 드렸다가는 다시 받아오고 모든 일에 정함이 없습니다.

[Now] let the brother who is poor rejoice in that he is exalted: But the rich, in that he is made low: because as the flower of the grass he shall pass away. For the sun no sooner is risen with a burning heat, but it withers the grass, and the flower thereof falls, and the grace of the fashion of it perishes: so also shall the rich man fade away in his ways (1:9-11).

(이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찌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1:9-11).

So James has quite a few things to say concerning the rich. And that is, those who are possessed by their riches he rebukes in chapter two those people in the church who pay special respect to the rich people. Because a person has money, sort of giving them special favors. And that's a policy rebuked in chapter two.

그래서 야고보는 부자에 대해서 몇가지를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 야고보는 교회에서 부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부자들이 돈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야고보서 2장에서 책망하는 정책입니다.

Here in chapter one, he speaks out against those rich who would use their riches to oppress others, to gain a special position. He says, "Hey, you're going to fade like a flower in the field. You're going to pass away."

A man of low degree better rejoice in that he's exalted. But the rich in that he is made low (9-10).

여기 1장에서, 야고보는 부자들이 그들의 재산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거나, 아니면 특별한 지위를 얻으려고 하는 것에 대항하여 말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여보세요. 당신은 들판에 있는 꽃과 같이 시들고 곧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찌니 (9-10).

In the final chapter of the book, he says, "Go to now, ye rich men, weep and howl for the miseries that are come upon you. For you've laid up your gold and silver for the last days. But now it's worthless" (James 5:1-3).

야고보서의 마지막 장에서, 야고보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야고보서 5:1-3).

Blessed is the man [or happy is the man] that endures temptations (1:12):

That has victory over temptations. What a glorious thing it is when I have been tempted and I'm victorious. I didn't respond after the flesh. I didn't get all upset and angry and say mean things that now I am sorry for. Have you ever noticed how miserable you are whenever you fail? Whenever you blow it? Whenever you just give over to the flesh and you say all these nasty things and you just you know yell and say mean things to people. Afterwards you ever notice how miserable you are? How you just sort of hate yourself and you're embarrassed to go around the people again. You know you've got to apologize for the things you said and all. And you just feel horrible, you feel miserable. I got in the flesh. Miserable experience.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행복한 사람이라) (1:12)

그것이 시험을 이기게 합니다. 내가 시험당하여 승리할때 그것은 너무나도 영광된 일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좇아서 행하지 않고, 흥분하지 않고 절제하고, 분을 참으며 비열한 행동을 사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패한 것을 깨달을 때는 언제나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주목하신적이 있습니까? 실수했을 때든지, 육신에게 저서 상스러운 말을 했거나 사람들에게 소리를 질렀거나 상스러운 말한것을 알 때 얼마나 비참한 자신을 발견하신 적이 있습니까? 스스로 자신을 미워하고 다시 사람들에게 다니기가 대단히 당혹스럽게 느껴집니다. 여러분이 말한것과 행동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하는 것도 잘 알것입니다. 그저 불쾌하고 비참하게 느끼게 될것입니다. 내가 육신을 좇아 살면 비참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But oh how blessed it is when you have victory and I didn't respond according to the flesh. When I responded after the Spirit, when I did the right thing. And you feel so good because you know that the Lord gave you the strength to respond in the Spirit.

Happy is the man that endures temptations, for when he is tried (1:12),

그러나 여러분이 승리하여 육신에 따라 반응하지 않고 성령을 좇아 반응을 보였으며 옳은 일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매우 행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성령 안에서 반응을 하도록 능력을 주신 것을 알게되므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1:12);

Faith is tested; we turn out to be true. And it's important that the faith be tested because we are so prone to deceive ourselves. In the next chapter, actually in this chapter he's going to talk twice of self-deception. If you're a "hearer of the word only, you're deceiving yourself" (James 1:22). If you think that you're a religious person and yet you don't bridle your own tongue, you're deceiving yourself. Your religion is vain. So it is important that faith be tested. It's important that I know where I am. That I know what God knows about me. That I not think more highly of myself than I ought to. That I am not deceived and living in a false sense of security. But that I know the truth. And God allows the temptations, the testing, in order that I might know the truth about myself.

우리가 진실한지를 증명하기 위하여 믿음은 시험을 받아야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야고보는 이 장에서 스스로 속이는 것에 대하여 두번 말할것입니다. 너희가 듣기만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니라" (1:22). 그 후에야 우리의 신앙은 비로소 진실함이 드러납니다. 신앙이 연단 받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속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야고보는 1장과 그리고 2장에서 연달아 자기 기만에 대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연단은 중요합니다.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누구이며 어디에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어떤 것도 숨길 수 없으며, 겸손하게 내 자신을 낮추어야 하고, 결코 스스로를 속여서는 안되고 거짓된 은밀함 속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연단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진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단을 겪음으로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God said to the children of Israel, "For forty years I suffered you in the wilderness, and I tempted you and I proved you, to see what was in your heart" (Deuteronomy 8:2). Not that God would see what was in their heart, He knew it but they didn't know it. So He tested them so that they could see what was in their heart. "For the heart is deceitful, and desperately wicked" (Jeremiah 17:9). It is deceitful and we are guilty so often of deceiving ourselves.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사십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신명기 8:2).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벌써 다 아시지만 그 백성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수있게 하신 것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예레미야 17:9). 우리의 마음은 거짓되고 우리 스스로 속이는 죄를 빈번히 범합니다.

"Be not deceived," Paul said (1 Corinthians 6:9). Testing is a great way to learn the truth about me. It comes out in the time of trial. Again, when everything is going great, everything is running smooth; I don't know the truth about me. I don't know how I would respond in real adversity. God allows the adversity so that I can see the truth about myself and how I would respond in adversity. And when the adversity comes and I respond after the Spirit, Ah man, what a joyful delight. I often say, "Hey,

that's not me. That's the Lord working in me because that isn't the way I would naturally respond." And it's a joy to see God's Spirit working in our lives, transforming us into the image of Jesus Christ.

When we've been tried,

[we] shall receive the crown of life (1:12),

바울은 “미혹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9). 시험은 나 자신에 대하여 배울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것은 시련을 겪을 때 나타납니다. 모든 것이 잘되어가고 모든 일이 잘 되어가면 나 자신에 대한 진실을 알지 못합니다. 참으로 역경에 처할 때 어떻게 처신해야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경을 허락하심은 우리 자신에 관한 진실을 보게 하시고 역경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역경이 찾아 올때 성령을 따라 반응을 보일때 그 기쁨은 넘치는 것입니다. 나는 빈번히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그건 내가 아닐세. 그것은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야. 왜냐하면 나의 자연적인 반응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며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주시는 것을 볼때 그 기쁨은 표현할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은 후에,

(우리가)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라(1:12)

Now Jesus to the church of Smyrna in His letter to the church of Smyrna in book of Revelation 2, He spoke about the trials that they were going to go through. But He said, “Be thou faithful unto death, and I will give to thee a crown of life” (Revelation 2:10). And so this glorious crown of life, that eternal life that we have through Jesus Christ.

요한계시록 2장에서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보내시는 그의 편지에서, 저희들이 겪고 있는 시험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씀하시기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10). 그래서 이 영광스런 생명의 면류관 곧 영생의 면류관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받은 것입니다.

which the Lord hath promised to those that love him. Now let no man when he is tempted say, I've been tempted by God: for God cannot be tempted with evil, and neither tempteth he any man (1:12,13):

Now this is temptation in a little different sense. This is temptation, which is a solicitation to evil. It isn't a testing that you can find out where you are. But this is actually a solicitation to evil. God doesn't solicit any man to evil. Satan solicits man to evil. Satan solicited Eve to evil.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찌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12,13)

여기에서 시험은 약간 다른 의미에서의 시험입니다. 이것은 유혹으로 악을 행하도록 권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할수 있는 시험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실제로 악을 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악을 권하지 않으십니다. 사탄은 사람에게 악을 권하며 사탄은 해와를 악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You remember when there were the five thousand who had followed Jesus to a wilderness place and it was evening and Jesus said to Philip, "You better go in town and buy bread for this multitude" (John 6:5). And John said, "This He said proving him" (John 6:6). The word "prove" there is the same Greek word as "tempt." This He said tempting him because Jesus knew what He was going to do. He just wanted Philip to say, "Oh man, what do you mean, Lord, you know. Where can we buy enough bread for all these people?" And so Jesus said this testing him. Proving him. The Greek word is the same used for tempting him. But it wasn't a solicitation to evil. It is how are you going to respond; in the flesh or in the Spirit?

요한복음 6장에서 5000이나 되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 다니던 일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는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이나 되는 무리들과 함께 다니시다가 저녁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필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요한복음 6:5). 요한이 이를 두고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요한복음 6:6) 라고 했습니다. 헬라어에 "시험하다" 라는 것과 똑 같은 단어가 "검증하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이말씀은 그를 시험하기 위한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어떻게 하실것을 벌써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그저 빌립이 "밥소사,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다 아시잖아요. 이 사람들을 먹일 충분한 양의 떡을 어디서 샅니까?" 라고 말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심은 빌립을 시험해서 검증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악을 행하도록 권유하는 것으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육적인 반응을 보일른지 영적인 반응을 보일른지를 아는 방법입니다.

And so when our temptations come, if it is a solicitation to evil it isn't of God. It's from Satan. So when I am tempted, solicited to do something evil, I shouldn't say, "Oh God really tempted me today, you know. I saw a man drop his wallet and I could see a hundred-dollar bill in it. Boy, I was tempted by God to keep that money." No, no, no! You weren't tempted by God to keep it.

그러므로 유혹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악을 행하도록 기울여 진다면, 그것은 전혀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유혹을 느끼는데, 달콤한 악을 행하기로 이미 마음이 기울여져서 넘어갔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말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네가 봐도 그렇지! 내가 오늘 어떤 남자가 지갑을 떨어뜨리는 것을 봤는데, 그 안에 십만원이 있는걸 봤어. 이봐, 하나님께서 내가 그 돈을 가져가도록 시험하시는 것 같애.' 아닙니다. 절대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남의 돈을 가져가도록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So "don't let any man say when he's tempted I've been tempted of God. God is not tempted with evil, nor does He tempt man with evil." God does put test before us that we might have the opportunity to respond in the flesh or in the Spirit. But God doesn't tempt us or solicit us to evil.

But every man is tempted [or solicited to evil], when he is drawn away of his own desires or lust, and enticed (1:14).

따라서 야고보가 말하듯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찌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가 육에 따라서 행할 것인지 성령을 좇아 행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우리를 유혹하셔서 악에 기울어지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혹은 악을 권유하는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야고보서 1:14)

Now there is deep within every man a great desire for fulfillment. There is deep within every man a thirst, which creates sort of a frustration with life. A awareness that there’s got to be more to life than this. Jesus was referring to that in the seventh chapter of John in the great day of the feast when He said, “If any man thirst, let him come to me, and drink” (John 7:37). He’s talking about the spiritual thirst that man has. Not the physical. There is this desire, deep desire that I have for meaning, for fulfillment in life.

모든 사람들의 속 깊은 곳에 충족되어야 할 큰 욕망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속의 깊은 곳에 갈증이 있으며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좌절감을 일으킵니다. 삶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요한복음 7:37) 고 하신것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이 가진 영적인 목마름에 대하여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욕망, 즉 삶의 의미와 만족을 채우고자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Now Satan comes along and he suggests to me that in order to have fulfillment I don’t have to be patient and walk the path that God has set before me. But temptation usually involves the idea that I can have immediate fulfillment if I will just turn aside from God’s path. Now when Satan came to Jesus, that was the whole idea behind the temptation.

이제 사탄은 내가 만족을 채우기 위해 인내하거나 하나님이 내 앞에 놓으신 길을 행할 필요가 없다는 제안을 하려고 다가옵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옆으로 피하려 한다면 당장에 그 욕망을 충족시킬수 있다는 생각을 포함한 유혹을 합니다. 사탄이 예수께 왔을 때 그것이 그의 유혹의 배후에 있었던 전체적인 생각이었습니다.

You’ve come to redeem the world. You’ve come to bring the world back under the sphere and dominion of God. God has sent You for that purpose, to redeem the world. And God has purposed that you go to the cross and that you suffer and you die in order to redeem the world. Tell you what. You can escape the cross. You don’t have to take God’s path by way of the cross that’s a painful way. You can have immediate fulfillment. Tell you how. If you’ll just bow down and worship me, I’ll just give you all the kingdoms of the world. You see, the idea was turn aside from God’s path and you can find immediate fulfillment right here.

“당신이 세상을 구속하러 온거지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영여과 주권에 돌리려고 온것이지요. 하나님이 그 목적으로 당신을 보내어 이세상을 구속하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구속하시려고 당신을 보내어 십자가에 가서 고난을 받고 죽도록 하려는 목적이지요. 당신에게 할 말이 있소. 그 십자가를 피할수 있소. 그렇게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길을 택할 필요는 없소. 그것을 당장 성취할수 있어요. 방법을 알려 드리죠. 만일 당신이 내게 절하고 경배하면 이 세상의 만국을 주겠소.” 아시다시피, 그 생각은 하나님의 길을 피하여 여기서 당장 성취하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Now that is what Satan is always using, the concept of immediate fulfillment. And to different people he holds out different enticements. You don't have to take God's path. You don't have to follow the word of God. You see, God is restricting you. God is holding you back. That's what he said to Eve. God's keeping you from something good. Here you have fulfillment, it's right here. It's in this fruit, Eve, and God's trying to keep you from something good because He's afraid that you're going to be as wise as He is when you eat of it because this fruit contains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God doesn't want you to share this knowledge with Him. He's holding back from you. Now you can have immediate fulfillment, Eve, eat and you can have immediate fulfillment.

그것이 바로 사탄이 항상 사용하는 당장 만족시킨다는 개념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유혹들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반드시 택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사탄이 헤와에게 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취할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기 있어. 헤와, 그것은 바로 그 실과 안에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좋은 것을 네게 주지 않으려고 그러시는 거야. 그 이유는 네가 선악을 아는 지식이 있는 이 과실을 먹을 때 네가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까봐 두려워서 그러시는 거야. 하나님은 지식을 너와 함께 나누기를 원치 않으시거든. 그래서 너에게 주지 않고 감추는 거야. 헤와, 이제 너는 이 과실을 먹기만하면 당장에 그것을 충족시킬수 있어.”

And so he holds to us forbidden fruit. Something that is contrary to the word of God. Oh, you don't have to take God's path. You can have immediate fulfillment. It lies in this relationship. Maybe fornication, maybe adultery. But oh, he holds it up and you know, here's immediate fulfillment. You don't have to follow God's path at the cross, denying yourself, denying the flesh. No, no, the it lies in turning aside from God's path and indulging the flesh. You can have the fulfillment now. This is what you're really desiring. And he holds out the enticement of immediate fulfillment.

그래서 사탄은 우리 앞에서 그 금지된 실과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대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도 당장 성취할수있다고 사탄은 말합니다. 그것은 이 관계성에 있습니다. 그것이 음란한 것이거나 간통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걸 들고 나와서 여기에 당장 성취될수 있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부인하며 육신을 부인하는 하나님의 길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사탄은 말합니다. 절대로 그건 안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떠나서 육신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충족시킬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정말로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당장에 만족시킬 유혹을 들고 나옵니다.

Paul said something quite interesting in his letter to the Ephesians. He said, “Be not drunk with wine, wherein is excess; but be ye filled with the Spirit” (Ephesians 5:18). Now those seem like two very unlikely things to relate together. The alcoholic to the Spirit-filled man. And they seem a very unlikely combination to put together. But if you look at it carefully, it isn't. The man who turns to alcohol, what is he looking for? An immediate fulfillment. And Satan has deceived him and said, Hey, here it is. Here's the way to get happy. Here's the way to forget your problems. Here's the way to cope with life. Just enjoy a few drinks till your mind gets fuzzy and you don't have to think about these things. You know, it will just relax you and it will just release the tensions and you can have immediate fulfillment. You don't have to follow God's path.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아주 재미있는 것을 말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5:18). 그 두 가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 알코홀릭은 함께 두기에는 전혀 조화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하여 살펴보면 알코홀에 눈을 돌리는 사람은 무엇을 찾습니까? 당장에 성취할수있는 것을 찾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를 속여서 말하기를 “여보게, 여기 있어. 행복하게 되는 방법이 여기 있어. 자네의 문제를 잊어버릴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어. 여기 있는 이 방법으로 인생을 대처해야돼. 정신이 몽롱해져서 이 일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지 않도록 몇잔 더 즐기게. 잘 알겠지만, 술이 마음을 풀어주고 긴장감을 풀어 줄 것이며 당장 성취할수 있어. 하나님의 길을 따를 필요가 없어 라고 사탄이 속삭입니다.

But what happens to the man who is filled with the Spirit? He has that fulfillment. He has that sense of well being. He has that peace. He is a relaxed person. So the one is searching for it in alcohol, the other has found it in the fullness of the Spirit. And that man who is joyful in the fullness of the Spirit has exactly what the other man is really looking for and searching for. But he's turned aside from God's path and he's searching in the wrong place.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은 충만함을 가졌습니다. 그는 건강을 관리하는 감각을 가졌습니다. 그에게는 평안이 있고 마음에 긴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삶은 알코홀에서 그것을 찾지만 다른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에서 그것을 발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 사람이 바로 다른 사람이 찾으며 구하고 있는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엉뚱한 곳에서 그것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So every man when he is tempted is drawn away of his own lust, and enticed. There's a great desire inside. Satan is pointing to this path and saying, "Hey, hey, don't have to go the way of the cross. You don't have to deny yourself. You don't have to take up the cross and follow Jesus. Tell you what, you just follow my path and I'll give it to you instantly. You don't have to wait; you can have it right now."

Now when this desire has conceived, it brings forth sin (1:15):

그래서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거대한 욕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 경로를 가리키면서 말하기를 “여보게, 십자가의 길을 걸을 필요가 없어. 네 자신을 부인할 필요도 없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를 필요가 없다니까. 한 가지 말해 줄게. 내 길을 따르면 그것을 당장 줄게. 기다릴 필요없이 지금 당장 갖게 되는 거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야고보서 1: 15)

The sin isn't in the temptation. We all of us experience temptation. Even Jesus was tempted of the devil. The sin doesn't lie in the temptation. The sin is there when I give into my desire of my flesh and I turn after the path that Satan suggests. That when the lust is conceived, it gives birth to sin. That's the beginning of sin.

and sin, when it is finished, brings death (1:15).

Spiritual death; ultimately, physical death.

Do not err, my beloved brethren. Every good gift (1:16,17)

시험 그 자체에는 죄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시험을 받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시험 자체에는 죄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내가 육체의 소욕에 굴복하고 내가 사탄이 제시한 길을 따라가려고 돌아 설때 죄를 짓게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할때 죄가 탄생합니다. 그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야고보서 1:15)

이처럼 영적 죽음은 결론적으로는 우리 몸의 죽음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야고보서 1:16, 17a)

Now the Greek word here is different from the second Greek word for gift, this is “dosis” and the other one comes from “didomi.” And one refers to the giver and the other refers to the gift. The first one here refers to the giver. The act of giving. Every good gift that is given and every or every good giver in a sense.

and every perfect gift is from above (1:17),

여기에서 쓰인 그리스어는 은사를 뜻하는 두 번째 그리스어와 다른 어휘입니다. 이것은 “도시스(dosis)” 이며, 다른 그리스어 어휘는 “디도미(didomi)” 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주는 사람을 가리키며 다른 어휘는 선물을 가리킵니다. 여기의 첫번째 단어는 주는 사람을 가리키며 주는 행동을 말합니다. 모든 좋은 선물이 주어졌고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좋은 선물을 주는 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내려오나니 (1:17)

The gift of God to us. His goodness, His grace, His love, comes from above,

comes down from the Father of lights, with whom is no variableness, neither shadow of turning (1:17).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의 선하심과 그의 은혜와 그의 사랑이며 이 모든것이 위로 부터 옵니다.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1:17).

The immutability of God. He said, “Behold, I am the Lord God, I change not” (Malachi 3:6). What does that mean? It means that He doesn’t alter the rules for you. You’re no special exception and you have no special case.

하나님의 불변성을 살펴 봅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와는 변역지 아니하나니” (말라기 3:6).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 한사람을 위하여 법을 바꾸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예외가 아니며 특별한 경우도 아닙니다.

It's interesting how Satan so often seeks to lie to people and say, "Hey, hey, that doesn't apply to you. You know, this is special. I mean, this is real love. And so the rules don't apply to you. You've got a special dispensation of indulgence that God has granted." No way. God does not change the rules for anybody. *There is neither shadow, nor variableness of turning with Him.*

Of his own will begat he us with the word of truth (1:18),

사탄이 얼마나 자주 사람들에게 어떻게 거짓말을 하려느냐를 보면 흥미롭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이봐, 그것이 너한테는 적용되지 않아. 너도 알다시피, 이것은 특별한 것이고 이것은 진짜 사랑이야. 그래서 그 법이 너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너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특별한 사면의 섭리를 가졌어." 그럴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위해서 법을 바꾸시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1:18)

Interesting. In John chapter one, the gospel, it says, "Who were born," talking about being born again, "not by the will of man, nor by the will of the flesh, but by the will of God" (John 1:13). Have you been born again? How is it that you were born again? Because you chose to be born again? Not really. Because God chose that you should be born again. You were born again "not of the will of man, nor of the will of the flesh but of the will of God."

흥미로운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있는데, 말하기를 "태어난 자들" 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거듭난 자를 말하며 "혈통으로나 욕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13).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어떻게 거듭 날수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거듭 나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시도록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혈통으로나 욕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 입니다.

Jesus said, "You didn't choose me, I chose you, and ordained that you should be my disciples and that you should bring forth fruit, and that your fruit should remain" (John 15:16). That to me is a glorious glorious truth that God chose me. That thrills me that God would choose me. It thrills me because God chose me on the basis of His foreknowledge. "Whom he did foreknow, he did also predestinate" (Romans 8:29). And on the basis of His foreknowledge, He chose me and I have been begotten again by the will of God. I've been born again by the will of God. You've been born "not by the will of man, nor the will of flesh, but by the will of God."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제자로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려함이라" (요한복음 15:16).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그 사실이 나에게 너무나 영광스러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시고 택하셨으니 그것이 나를 전롭게 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정하셨으니"(로마서 8:29).

하나님께서는 나를 미리 아시고 선택하셨으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I love it that God should choose me. I love it! I love it especially because He chose me on the basis of His foreknowledge, which means He knew the end from the beginning. And He chose me on the basis of what He knew would be the end of my walk and fellowship with Him. You see, God wouldn't be so foolish as to choose losers.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이 말씀을 무척 좋아합니다. 정말로 좋아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간직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아셔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에 근거해서 나를 선택하셨으며 나의 주님과 교제와 행함의 마지막을 다 아십니다. 시기 때문입니다. 동행다는 이 사실은 나의 발걸음의 목표가 되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이유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패자를 선택하지는 어리석은 분이 아니십니다.

If you had the power of foreknowledge, you wouldn't choose the losers. That'd be ridiculous, wouldn't it? Think of what you can do if you could make all of your choices with the advantage of foreknowledge. You knew exactly what would be the result of this choice.

만약 여러분이 미리 알수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패자를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고 우스꽝스러운것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미리 알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선택을 할수 있다면, 이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할수있는 것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선택의 결과가 어떠하리라는 것을 벌써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I knew exactly which horse was going to win every race. I knew the results. You know, win place or show, or whatever they do. Now if you had that kind of knowledge, if if you knew in advance that as God does, and you'd go to Santa Anita, would you pick a bunch of losers? You'd be foolish if you did. Of course you wouldn't. You'd pick winners. Now God has that kind of knowledge and He chose you. Hey, hey, hey, what's it mean? Means you're a winner. Means you can't lose. Who have been born again of God.

정말로 내게 그런 예지 능력이 있다면, 나는 경마장에서 어느 말이 승리할 지를 정확하게 알수 있으며 그 결과도 벌써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것처럼 알수 있는 지식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산타 아니타의 경마장에 가서 패자들만 고르시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바보가 될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않고 승자를 고르겠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을 가지셨기에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보시요,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그 말은 여러분들은 승자들이란 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으로 부터 거듭난 여러분들은 패자가 될수 없다는 말입니다.

Peter in his first epistle said, "Thanks be unto God who has begotten us again" (1 Peter 1:3). But you know that that's but how would you say, Who has borned us again. But that's literally what it is, who has borned us again. My being born again is a work of God, God has chosen me and I was born again by a work of God's Spirit, not by even my own will. "Not the will of man nor the will of the flesh but by the will of God."

So here again, *Of his own will, He begat us with His word of truth.*

that we should be kind of firstfruits of his creation (1:18).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베드로전서 1:3)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어떻게 여러분이 “누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는가?” 라고 말할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자 그대로 누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지를 말해줍니다. 내가 거듭 난것은 하나님의 역사이시고 나를 선택하셔서 심지어 나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람의 뜻도 아니요 육신의 의지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다시,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1:18).

New creatures in Christ.

Wherefore, my beloved brethren, let every man be swift to hear, slow to speak, slow to wrath (1:19):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며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1:19)

Now if you've done much counseling with Romaine, you know that he informs you that God gave you two ears and one mouth. Now think about that. It means that He wants you to hear twice as much as what you speak. Don't be so quick to speak. Be quick to hear, but slow to speak, slow to wrath. Oh, if I'd only been slower to speak. If I just kept my mouth shut, how much easier things could have been. But when we are quick to speak, so often we are wrong. And we have to then later take back what we said. So *slow to wrath:*

For the wrath of man does not work the righteousness of God. Wherefore set aside all the filthiness and superfluity of naughtiness (1:20,21),

만일 당신이 우리 교회 부목사와 상담을 많아 했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두개의 귀와 한 개의 입을 주셨가를 잘 알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생각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말하는 것보다 두배이상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말하려고 서둘지 마십시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이 말하지 않고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 일이 얼마나 수월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기를 속히할때 실수가 빈번합니다. 그러면 했던 말을 그 후에 되돌려야 합니다. 노하기를 더디 하십시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리고(1:20,21)

Whatever that is. Superfluid. Another good word would be overflowing. Fluid flows, super is over, so the overflowing of wickedness. Or the abounding of wickedness. So “set apart all filthiness, overflowing of wickedness,”

and receive with meekness the engrafted word, which is able to save your soul (1:21).

그것이 무엇이든시간에 넘쳐흐릅니다. 다른 적절한 말은 넘쳐흐름입니다. 액체가 흐를때 남는 것은 넘칩니다. 마찬가지로 악이 넘치는 것입니다. 또는 악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더러운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라” 고 합니다.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1:21).

Set aside our pride, set aside our wicked ways, and let’s just hear the word of God because it is by the word of God that we are born again. It is the seed planted that brings the new birth. The word of God sown in our hearts brings new life, new birth. And so “receive with meekness the engrafted word, which is able to save your souls.”

But be doers of the word, and not hearers only, deceiving yourself. For if any man is a hearer of the word, and not a doer, he is like unto a man beholding his natural face in a glass: For he beholds himself, and then he goes away, and immediately he forgets what manner of man he was (1:22-24).

우리의 교만과 악한 길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읍시다. 우리가 거듭 난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탄생하게 된것은 뿌려진 씨앗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뿌려진 씨앗이 새 생명과 새 탄생을 가능케합니다. 그러므로 “능히 우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 버리거니와 (1:22-24)

It’s so easy to get sort of an exalted opinion of ourselves. Nothing like little granddaughters to keep you honest, you know. I mean, you look in the mirror and you say, “Umm, you know, look at that flaw. Oh my,” you know. Then you go away and you forget. So my little granddaughter says, “Grandpa, your teeth are yellow.” Well, I’m prone to forget that. “Grandpa, you got crinkles on your face.”

우리 자신에 대하여 과대평가 하기가 쉽습니다.” 어린 손녀같이 정직한 사람은 없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혼잣말로 “흐음, 저 흉터 좀 보게, 이런” 하고난후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지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내 손녀가 “할아버지, 할아버지 치아가 누렇게요” 라고 합니다. 나는 그런 것을 잘 잊어버립니다. 손녀가 “할아버지, 얼굴에 주름살이 많이 졌어요” 라고도 합니다.

And so the man who is a hearer of the word. You begin to get a false concept of yourself. “Well, after all, I go to Bible studies and I’m really studying the word of God. I really know the Scriptures. I’ve memorized the book of John and I really know the Scriptures.” Yeah, but are you doing it? You see, if you’re just a hearer and not a doer of

the word, then you are deceiving yourself. You think that you're in better shape than you really are. You're not acknowledging the truth about yourself. And so we need to be the doers of the word. It's it's "not those that have the law that are justified, but those that do the law," Paul said (Romans 2:13). And that was the mistake that the Jewish people were making. They thought, well, we have the law of Moses. Paul said, No, no, that isn't enough. You've got to keep the law of Moses.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하여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 나는 성경공부에도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공부하니깐, 나는 확실히 성경을 알고있어. 더구나 요한복음을 외었으니 성경을 정말 알지." 그렇다면, 그것을 행합니까? 말씀을 듣기만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실제의 자기보다 더 나은 상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한 진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라고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로마서 2:13).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범하는 과오였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를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가졌으니깐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율법을 가진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한다고 말했습니다.

James said, Well you say you have the word of God; that isn't enough. You've got to be doing the word of God. There's got to be the practical application. There's got to be obedience to the commands. Be ye doers of the word and not hearers only because you'll deceive yourself.

But whoso looks into the perfect law of liberty, and continues therein, he being not a forgetful hearer, but a doer of the work, this man shall be blessed in his deed (1:25).

야고보는 너희가 말씀을 가졌다고하나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말씀을 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말씀의 실제적 응용이 있어야되는 것입니다. 계명에 순종해야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지말고 행하는자가 되어야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자신을 속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 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 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1:25)

In the work, in the deeds that he does.

Now if any man among you seems to be religious, and doesn't bridle his tongue, he is deceiving his own heart, and this man's religion is vain (1:26).

그가 행하는 행위에서,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1:26)

It's empty.

But pure religion and undefiled before God and the Father is this, Visit the orphans and the widows in their affliction, and keep yourself unspotted from the world (1:27).

That's what it's really all about. Doing good for those that are in need. Reaching out to help those. That's what it is to be a doer of the word. It's translated into positive actions of reaching out to help those in need. And to just keep yourself unspotted from the world.

Now my brothers, have not the faith of our Lord Jesus Christ, the Lord of glory, with respect of persons (2:1).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1:27)

그것이 진실로 경건에 관한것 전부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며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의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려고 말씀을 적극적인 행동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2:1)

This is so difficult. It is so easy for us to fall in the trap of respecting persons. It's just I don't know a part of our whole social structure, I guess, is that of respecting certain persons above others. You've got to be careful that we don't fall into that trap.

이것은 사실 아주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을 차별대우 하기 쉽습니다. 나는 우리 사회의 전체구조를 잘 모르겠지만 사람을 차별 대우하도록 되어있는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So often a person will introduce himself, "Well I am Dr. So." Doctor, oh my, we respect the person. We shouldn't be a respecter of persons. God isn't. "God is no respecter of persons," the Bible says (Acts 10:34). We shouldn't be.

가끔씩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사 누구입니다" 라고 합니다. 오, 박사라, 우리는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차별대우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0:34). 우리들도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If there comes into your assembly a man with a gold ring, fancy clothes, there comes also a man in with rags that smell; And you have respect to him that is wearing the fancy clothing, and you say to him, Oh, sit here in this good place; and you say to the poor man, Stand over there in the corner, or sit under my footstool: Are you not then partial in yourselves, and you've become the judges of evil thoughts? Hearken, my beloved brethren, Hasn't God chosen the poor of this world rich in faith, heirs of the kingdom which he has promised to them that love him? But you've despised the poor. Do not rich men oppress you, draw you before the courts? Don't they blaspheme that worthy name by which you are called? (2:1-7)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 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 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찌어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시라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괘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훼방하지 아니하느냐? (2;1-7)

You've been called Christians. So be careful on this business of respecting a person just because he is rich. Or sort of snubbing a person because he is poor. Now let's be honest. We are far more apt to stop along the road and help a person with a flat tire who's driving a Mercedes than we are someone driving a Volkswagen bug. I mean, you see someone out there you know and in distress. "Oh my, you know, I'll be glad to help him because who knows, maybe they'll you know offer me five bucks you know for giving them a hand." But you've been there. That's respect of persons. Something we shouldn't be guilty of.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단지 어떤 사람이 부자라고 해서 그 사람을 존경하거나 혹은 어떤 사람이 가난하다고 해서 푸대접하지 않도록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정직하게 행동합시다. 우리는 길에서 운전하다가 타이어가 빵구라도 났다면 폭스바겐을 타는 사람보다는 메르세데스 벤츠를 타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정차하기가 더 쉽습니다. 내 말은 밖에서 곤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 말입니다. "나는 기꺼이 내려서 그를 도와야자 혹시 도와주면 한 5불쯤 줄지 누가 알아." 그러나 여러분은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차별대우하는 것이고 죄책감을 느낄 일은 하지 말아야합니다.

Interesting God has chosen the poor of this world as far as worldly good but rich in faith. God measures riches on a far different standard than do we. We're on the gold standard; used to be. We're on no standard now. Used to be gold notes. In effect, they said the government owes you twenty dollars worth of gold. Then we went to silver notes; the government owes you twenty dollars worth of silver. Now they're federal notes. They're not backed by anything so it means the government owes you nothing. It's true. They're not backed by anything. Just paper. But gold is not the standard of heaven. Asphalt up there; they pave the streets with the stuff.

하나님이 세상의 가난한 자를 택하시라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부에 대해서 우리와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판단하십니다. 우리는 금을 기준으로 해왔습니다. 이제는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금을 기준으로 하는 돈을 썼는데, 실상 정부가 20불에 해당하는 금을 빚져있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은지폐를 보면 정부가 20불어치의 은을 주게 되어있다고 적혀있습니다. 이제 연방지폐를 사용하는데 그것을 뒷바침하는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정부는 지폐에 대하여 아무것도 주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뒷바침하지 않으며 그저 종이 조각일 뿐입니다. 그러나 금이 하늘나라에서는 화폐의 기준이 아닙니다. 거리에는 금으로 아스팔트처럼 포장되어 있습니다.

God looks at the heart of a man and He sees the faith and the trust that is there in Him. And God says, Oh that's a rich man. He loves me. He trusts me. God looks at

some of the named people in the world who lived in the Four Hundred Club and God says, "Oh, what poor riches. They have nothing." Now we should look at people as God. We shouldn't have respect for wealthy people but we should be just as concerned to help the poor. In fact, most concerned to help the poor. The rich don't really need help so much. It's the poor that need our help, our attention. God help us. I'm guilty here. God help me.

Now if you fulfil the royal law (2:8)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그 사람의 신앙을 보시며 그 사람의 내면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는 부요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신뢰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유명하고 부유층에 사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오, 가난한자들, 가진게 아무것도 없군"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부자들을 차별대우 하지말고 가난한자를 도우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마땅합니다. 실상 가난한 사람을 도우는데 제일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부자들은 실제로 크게 도움이 필요없습니다. 우리의 도움과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나는 죄인 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너희가 만일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2:8)

I love this, the royal law. What is the royal law?

Thou shalt love thy neighbor as thyself (2:8),

That's the royal law. I like the title for it. *If you fulfill that royal law, Thou shalt love thy neighbour as thyself,*

you do well (2:8):

나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황금률이라고도 하는데 무엇이 황금률입니까?

이웃 사랑하기를 네몸같이 하라 (2:8),

바로 그것이 황금률입니다. 나는 그 제목을 좋아합니다. 만일 네가 최고의 법,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2:8):

Now really, that's where that young ruler sort of failed, isn't it, who came to Jesus, fell at His feet and said, "Good Master, what must I do to inherit eternal life? Jesus said, Keep the commandments. Which ones? Oh, thou shall not kill, thou shall not steal, thou shall not commit adultery, thou shall not bear false witness. Oh Lord, I kept all these from the time I was a kid. But what I, what do I lack yet? Well if you will be perfect, keep the royal law, go sell everything you have and distribute it to the poor. You'll have great riches in heaven." Keep the royal law;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hard to do, isn't it? Awfully hard to do. Loving my neighbor as I love myself. But if you keep that, you do well.

But if you have respect of persons, you're actually committing sin, and you're convicted of the law as a transgressor. Convinced of the law (2:9).

실제로, 바로 그것에서 젊은 관원이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 관원이 예수께 나와 그의 발에 엎드려져 말하기를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묻자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계명을 지켜라.” “어느 계명을 말씀하십니까?”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하였느니라.” “오, 주님, 이것들은 내가 어릴때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그런데 내게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네가 온전하려거든 최고의 법 (황금률)을 지켜라,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큰 보화가 있으리라.” 황금률을 지켜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행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행하기에 지극히 힘든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을 지키면 잘하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2:9)

It is pointing its finger of accusation against you.

For whosoever shall keep the whole law, and yet violate in one point, you're guilty, guilty of all. For the law says, Don't commit adultery, but it also says, Do not kill. Now if you don't commit adultery, but yet you kill somebody, you're guilty of violating the law (2:10,11).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려고 우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2:10,11)

You're a violator. Doesn't matter which one of the commandments you violated. Thou shall not kill. Thou shall not commit adultery. Oh, I've never done that. Love thy neighbor as thyself. Whoops. But you violate one point; you're guilty of all. You're guilty of breaking the law and it really doesn't matter which of the commandments you've broken. You're guilty of having broken the law. If you keep the entire law let yet you break one of the commandments, then you're just as guilty as if you've broken all of them. You are guilty of being a lawbreaker.

So speak, and so do, as they that shall be judged by the law of liberty. For he shall have judgment without mercy, that has showed no mercy (2:12,13);

여러분은 법을 어겼습니다. 어느 계명중에 어느것을 어겼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오, 나는 한번도 그런것을 범한적이 없습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앗차.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를 범하면 모든것을 범한 것과 똑 같습니다. 여러분이 위법했을 때 어느 계명을 어겼는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위법에 죄가 따르지요. 만일 여러분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으나 하나만 어졌다면, 여러분은 모든것을 다 어긴것과 같은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범법자로서 죄인이 됩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2:12,13)

Think about that for a moment. Jesus said, “Blessed are the merciful: for they shall obtain mercy” (Matthew 5:7). We are also told, “And whatever measure you meted out, it’s going to be measured to you in judgment. Judge not, lest you be judged. For whatever mete you measure, that’s the standard by which you’re going to be judged” (Matthew 7:1,2). Now I don’t like that. I want one standard for me and another standard for you.

잠시만 생각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산상 수훈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7). 또 말씀하시기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7:1,2). 나는 이 말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기준을 갖고 다른 사람은 자기의 기준을 가지는게 좋습니다.

But I if I stand in judgment against you, and if I begin to point a guilty finger at you and say, Boy, you’re really terrible, look what you did and all. What you did you may not have known was wrong. But I do because I’m judging you for it. And that means that’s the standard by which I’m going to be judged.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비판하는 위치에 선다면,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말하기를 “너는 지독한 놈이야, 네가 한 짓을 좀 보렴.” 여러분이 행한것이 틀렸다는 것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으로 여러분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내가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내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Interesting, all you have to do is just change the picture a little bit and put in different faces and oh, it’s horrible. Terrible. “How could they do such a thing?” Wait a minute. That’s me. I’ve done that.

여러분들이 해야할것은 그 그림을 조금 바꾸어서 다른 면으로 놓는 것입니다. 오, 끔찍스럽군. 지독하네. “어떻게 그들이 저런 짓을 할수 있었을까?” 잠깐만. 그게 나야. 내가 그것을 한거야.

David had all these beautiful wives. Walking on his roof one day, he saw a gal next door taking a bath. Lusted, desired her. Sent his servants over with a message, the king would like to see you. Committed adultery with her. A few weeks later he gets a note: Dear David, I’m pregnant. Bathsheba.

다윗은 아름다운 왕비와 후궁들이 많았습니다. 하루는 그의 옥상을 거닐고 있는데 어느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욕이 움직였고 그 여인을 사모했습니다. 부하에게 메시지를 주어서 보내어 왕이 만나자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그 여인과 동침했습니다. 몇주후에 밋세바로 부터 소식이 오기를 임신했다는 것이었습니다.

So David sends a message to his general to send her husband home on furlough. Her husband comes home. David says, “Well how’s everything going? How’s the battle?” “Oh fine.” “Well, you know, go home and spend the night with your wife. Talk to you in the morning.” He didn’t go home. He slept on David’s porch. In the morning the servant said, “Hey, he didn’t go home last night. He slept right here on the porch.” And David called him in and said, “What’s the matter with you, man? Got a beautiful

wife there, you ought to you know go home and spend the night with her you know. Enjoy your wife. What's your problem?" And the guy says, "Well," he said, "I was thinking of all my buddies. They're out there in the fox holes and it wouldn't be fair for me to go in and enjoy an evening with my wife while those guys are out there in the trenches. That wouldn't be very honorable."

그래서 다윗은 그의 군대장관에게 메시지를 보내어 그 여인의 남편을 휴가차 집으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집에 왔을 때, 다윗이 그에게 말하기를 “모든 일이 잘되어가나? 전쟁은 어떻게 되어가고?” “오, 잘되어 갑니다.” ?그래, 집에 가서 아내와 밤을 지내게. 내일 아침에 다시 이야기하세.” 그는 집으로 가지 않고 다윗의 현관에서 잤습니다. 아침에 하인이 말하기를 “그는 지난 밤에 여기 현관에서 잤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우리야를 불러서 말하기를 “이 사람아, 무슨 일이 있는가? 아름다운 아내도 있고 집에 가서 같이 잠을 잤어야지, 이게 뭐가. 아내와 시간을 보내야지. 무슨 문제가 있나?” 그는 말하기를 “나는 나의 동료들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밖에서 참호속에서 밤을 지새는데 내가 집에가서 아내와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것은 공평치 않다고 느꼈습니다. 그것은 별로 영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So David got him all soused. Told the servants, Keep his wine cup full. So the guy was drunk. Figure he'd stagger home; spend the night with his wife. And instead he staggered to David's porch, went to sleep again. In the morning, the servant said, "He spent the night here." The Bible says, "He that seeks to cover his sins shall not prosper" (Proverbs 28:13). David tried to cover his sins. Very dastardly way. He sent secret orders with this man back to Joab, the general. It said, "Put him in the front of the battle. When things get tough, withdraw the support from him."

그래서 다윗은 그에게 술을 잔뜩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하인에게 계속해서 술을 마시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잔뜩 취했습니다. 그가 비틀거리며 집으로 가서 그의 아내와 밤을 보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집을 가는 대신 비틀거리며 다시 다윗의 현관으로 자려고 들어갔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하인이 말하기를 “그가 여기서 밤을 새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잠언 28:13). 다윗은 아주 비겁한 방법으로 그의 죄를 숨기려 했습니다. 그는 이 사람을 비밀 명령을 주어서 요압장군에게 돌려 보냈습니다. 그 명령은 “그를 최 전선에 배치하라. 전쟁이 심해지거든 그를 지으느니하는 사람들을 후퇴시켜라” 는 것이었습니다.

And so Joab did as David commanded and he was killed in battle. Got the report. Killed in battle. David took Bathsheba as his wife. Figured he could cover his tracks. The child was born. David looked like he was a very magnanimous person. Here her husband was killed in battle and now David takes her as one of his wives to raise the child. Isn't that wonderful? No, it isn't.

그래서 요압장군은 다윗이 지시하는 대로 행했으며 우리아는 전사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전사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밋세바를 그의 아내로 취했습니다. 다윗은 그의 죄를 덮을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다윗은 매우 도량이 넓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밋세바의 남편은 전사했고 이제 다윗은 밋세바를 후궁으로 취하여 아이를 기르게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Nathan the prophet came to David. David thought nobody knew. He'd covered it pretty well. Nathan came to him and said, "David, a man in your kingdom, very wealthy man; he had more than he could ever spend. Tremendous herds, sheep, he lived next door to an extremely poor man who had as his sole possession one little ewe lamb that he loved greatly. In fact, it was sort of a

pet. He slept with it at night. Slept in the house and it ate at the guy's table. And the rich man had company. And he ordered his servants to go next door and by force to take the ewe lamb from this man and kill it in order that he might give it to his company. He might feed his company.” And David got angry and he said to Nathan, “That man will be surely put to death.” David said. Nathan said, “David, you're the man. You've had all these wives. Here's your neighbor. You take away. You're the man, David.”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왔습니다. 다윗은 아무도 그것을 모르는 줄 알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잘 감추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말하기를 “다윗왕이시여, 당신의 왕국에 어느 큰 부자가 있는데, 재산이 넉넉히 있었으며 수 없이 많은 가축이 있었고 양도 많았습니다. 그의 이웃에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에게는 그가 지극히 사랑하는 작은 암양 새끼 한마리 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그에게 애완동물이나 마찬가지로 였고 밤에도 함께 잠을 잤으며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하인들에게 이웃집에가서 새끼양을 빼앗아와서 그의 손님을 위해서 잡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의 손님을 대접하기위한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화를 내어 나단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고 하였습니다. 나단이 말하기를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은 많은 아내를 가졌고 여기에 네 이웃이 있는데 그에게서 빼앗았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You see, if we show no mercy we will be shown no mercy. Whatever measure we meted out, it's going to be measured to us again. That's why it's so dangerous to put yourself in the position of a judge. Judging other people's actions. “I can't understand why they would do something like that. That's horrible for them to do that, you know.” Watch out now. You're setting a standard by which you're going to be judged. “Blessed are the merciful, they shall obtain mercy”(Matthew 5:7). He who doesn't show mercy, he who judges without mercy will be shown no mercy.

but true mercy rejoices against judgment. Now what does it profit, my brethren, though a man says he has faith, and doesn't have works? can faith save him (2:12-14)?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아무런 공혹을 보이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 역시 우리에게 아무런 공혹을 보여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척도를 사용하든지 그척도가 우리에게 다시 사용되어 질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행동을 판단하는 재판장의 위치에 서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왜 그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는지 난 모르겠어. 그들이 그런 짓을 하다니, 끔찍해.” 조심하십시오. 당신 스스로가 판단 받을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공혹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공혹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태복음 5:7). 공혹을 베풀지 않는 자는 공혹없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공혹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에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2:12-14)

Now at this point many people see James and Paul in conflict in teaching. I don't. Paul teaches that salvation is through faith, faith alone. “By grace are you saved through faith; not of yourselves: it is a gift of God: not of works, lest any man should boast. For we are his workmanship” (Ephesians 2:8-10).

이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야고보와 바울을 가르침에서 서로가 충돌한다고 봅니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가르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8-10).

Then what does James say, *Can faith save him?* The answer is yes, faith can save him. A true faith. But make sure you have a true faith. For if you have a true faith, it will be manifested by the works. In other words, to just say you have faith doesn't cut it. Saying it isn't enough.

그러면 야고보가 말하는 바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대답은 “예” 입니다. 믿음이 그를 구원할수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라야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을 가졌는지 확인 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그것은 행위로 나타날것입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말로만 믿음이 있노라고 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I've had people come to me and say, “Oh, I have all the faith in the world.” Baloney! Nobody has all the faith in the world. And saying it doesn't make it so. If you believe certain things to be so, then your life is going to be lived accordingly. And so your life testifies of your faith or your beliefs. And to say that you believe in God and that God is supreme and that God is first in your life, then it will follow that there will be certain evidence that will verify that fact that you have declared to be so. And by the works that you do your faith will be proved or proclaimed. And to say that you have faith and not have any works that correspond is totally wrong. You've deceived yourself. You aren't really walking in faith. If you are truly walking in faith, your works are going to be manifesting that truth.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말하기를 “나는 이 세상의 모든 믿음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합니다. 헛소리입니다! 아무도 세상의 모든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말한다고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일이 그렇게 되기를 믿으면, 우리의 삶은 그 믿는바에 따라서 살게됩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은 당신의 신앙과 믿음을 증명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인생의 가장 높으신 분이며 우선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이 말한것이 과연 그러하다고 증명할만한 확실한 증거가 따라야 할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이 역사한다는 것이 증거되고 선포될것입니다. 말로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에 상당한 역사가 없다면 그것은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에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한다면, 여러분의 행위가 진리를 나타내게 될것입니다.

So “what does it profit if a man says he has faith, and he doesn't have works? can that kind of faith save him?” No, it can't.

If a brother or sister is naked, or is destitute of daily food, And you say to them, [Oh] Depart in peace, be warmed and filled; but yet you don't give them any clothes or any food; what good are your words (2:15,16)?

그렇다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믿음이 그에게 무슨 유익을 가져다 줍니까?” 아닙니다, 아무런 유익도 없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2:15,16)

They can't make him warm. They can't fill his stomach.

Even so faith, if it has not works, is dead, if you try to stand alone. Yes, a man may say, You have faith, and I have works: but you show me your faith without your works, I will show you my faith by my works (2:17,18).

말로만 해서는 험벗은 사람을 따뜻하게 해줄 수도 업고 굶주린 그 사람의 배를 채워 줄수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2:17,18)

So it isn't just the declaration. It's the declaration that has something behind it. The proof behind it is the works that I do. Now the works don't save me. They only prove that I have saving faith. And if I don't have works that are corresponding to what I am declaring, then I do not have saving faith, just the declaration, the verbal affirmation isn't enough and it won't do it.

이것은 단순한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믿음과 함께 무언가를 드러내라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 드러내라고 하는 바는 내가 말씀대로 행하는 그 행위입니다. 행위가 나를 구원하지 못하지만 내가 구원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증거하는 유일한것은 행위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에 합당한 행위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구원받는 믿음이 내게 없으며 말에 그칠뿐입니다. 말로만해서는 확인하기에 불충분합니다.

Now a lot of people made mistakes; going forward and saying the sinner's prayer and then going away and living the same kind of life doing the same kind of thing. They say, "Oh yeah, I was saved. I went forward and I said the sinner's prayer." No, no, the sinner's prayer isn't going to save you. It is a living faith in Jesus Christ that brings about actual changes in your life and the proof is in the works; the proof of your faith. Your works have to be in accordance, in harmony with what you are declaring to be true.

You believe that there is one God; [Ah] you do well: the devils believe the same thing, and they tremble (2:19).

아주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실수를 범하는 것은 교회의 앞에 나가서 죄인의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나서 가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똑 같은 것을 하면서 똑 같은 생활을 합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오, 그렇지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앞에 나가서 죄인의 회개하는 기도를 했거던요" 라고 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의 회개 기도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 증거는 행위로 나타나며 그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여러분의 행위는 여러분이 진리라고 말하는 것과 일치되고 조화되어야 합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 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2:19)

“Oh, I believe in God.” Big deal. Who doesn’t, except some fool? The Bible says the fool is the one that says there is no God. So you say you believe in God, it only proves one thing, you’re not a fool. But it doesn’t save you. The devils believe in God, they probably believe more firmly in Him than you do. They said to Jesus, “We know who you are, you’re the Holy One of God” (Mark 1:24). So you say, “Oh I believe Jesus is the holy One of God.” So what? Have you submitted your life to His lordship? Are you doing His works? Are you obeying His commands?

“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대단하군. 바보가 아닌 이상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딱 한가지를 증명하는데 여러분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귀신도 하나님을 믿으며 그들은 여러분이 믿는 것 보다 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기를 “당신이 누구인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마가복음 1:24).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오,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단 말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드러 그분을 주님으로 삼았습니까? 그분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의 계명에 순종합니까?

You see, not all who say, Lord, Lord, are going to enter the kingdom of heaven. So you say, “Oh Lord, Oh the Lord, Oh the Lord,” yea, yea, but saying is not going to do it. Jesus said, “not all who say, Lord, Lord, are going to enter the kingdom of heaven; but he who does the will of the Father” (Matthew 7:21). James is telling you the very same thing. It isn’t saying I have faith, it is demonstrating the faith because of the works of my life are in harmony with what I am declaring that I believe.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말하는 것이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21). 야고보는 여러분에게 똑 같은 것을 말합니다. 말로만 믿음이 있다고 할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여 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행위가 내가 말하는 것과 또 내가 믿는 것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If I believe that there was a bomb planted in this room, set to detonate in two minutes, and I’d stand up here and calmly proclaim to you, “You know, huge bomb in this room going to detonate in two minutes and blow this whole place to smithereens.” Terrible of people to do that, isn’t it? Can’t imagine the mind of a person that would plant such a bomb. Why would they want to destroy us? You’d say, “Ah, you don’t really believe there’s a bomb here.” Why? Because my works don’t correspond with what I’m declaring that I believe. But if I go running out of the door and say, “Get out of there, you know. Bomb’s going to blow up in two minutes,” you know, then you’re more apt to believe that at least I believe what I’m telling you because now my actions are corresponding with what I am declaring that I believe to be so.

만일 이 방에 폭탄이 숨겨져 있으며 2분 안에 폭발하도록 장치되어 있는 것을 믿으며 여기서 서서 조용하게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 방에 큰 폭탄이 2분내에 폭발하여 온방을 산산조각으로 만들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무서운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한 폭탄을 설치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수가 없어.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거야? 여러분은 말하기를 “아, 당신은 여기에 폭탄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행위와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문밖으로 뛰어 나가면서 “빨리 나가시오. 2분안에 폭탄이 폭발할

것입니다” 라고 한다면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믿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믿을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행동이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Now the same is true. You say, “Well I believe in God and I believe in the Lord Jesus Christ and all.” Well, do your actions correspond? Do your actions really show that Jesus is the Lord of your life? Is that demonstrated by the works that you do? That’s what James is saying. Don’t just say it. Don’t rest in just words, beautiful words. But let’s see the actions that demonstrate that you truly believe what you’re saying.

Will you know, O vain man, that faith without works is dead (2:20)?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도 다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행위가 그에 상응합니까? 여러분의 모든 행동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행위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냥 말로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가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말로만 하는데 그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말하는 바를 참으로 믿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을 보게 합시다.

아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 것인줄 알고자 하느냐? (2:20)

It isn’t really alive. It isn’t a living faith. It isn’t a saving faith.

Was not Abraham our father justified by works, when he had offered Isaac his son upon the altar (2:21)?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살아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21)

You see, his works corresponded with his faith. He believed God. He believed that through Isaac God was going to raise up a nation because God has promised that. Through Isaac shall thy seed be called. Now his very offering up of Isaac was proof of his strong belief in the word of God. Believing that God would if necessary raise Isaac from the dead to keep His promise. And so his faith was in keeping or his works were in keeping with his faith.

Seest thou how faith wrought with his works (2:22),

보시다시피, 그의 행위는 그의 믿음과 상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나라를 일으키실 것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삭을 통하여 남자만이 약속의 자손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그가 이삭을 바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강한 믿음의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약속을 지키시기위하여 필요할면 이삭도 다시 살리시리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을 지켰고 그의 행위는 항상 그의 믿음과 병행했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2:22),

They were working together. His faith produced the works as faith will also produce the corresponding works in our life.

and by works was faith made perfect (2:22)?

Not a question mark. In the Greek there is no question mark there. It's just the declaration, "by works his faith was made complete." His faith was proved. And the scripture was fulfilled which said, Abraham believed God, and it was accounted unto him for righteousness: and he was called the Friend

of God. You see then how that by works a man is justified, and not by faith only (2:23,24).

The works being the proof of the faith.

신앙과 행위는 함께 역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그 믿음대로 행위를 일으켰듯이 우리의 신앙도 역시 우리의 삶속에서 이에 부합하는 행위를 일으킬 것입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2:22)?

여기에는 의문부호가 필요 없습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이 문장이 의문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 는 말단순한 선언입니다. 그의 믿음은 증명 되었습니다.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2:23,24)

행함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Likewise also was not Rahab the harlot justified by works, when she received the messengers, and had sent them out another way? For as the body without the spirit is dead, so faith without works is dead also (2:25,26).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25,26)

When your spirit leaves your body, your body is dead. The body without the spirit, dead. So faith, if it doesn't have corresponding works, is not a true faith. It's dead. It does nothing for you. It cannot save you. Dead faith can save no one. It's a living faith and a living Lord and that living faith can be demonstrated by the actions of my life that are in harmony and corresponding with what I declare to be true and what

I declare I believe to be true. There has to be the corresponding works for faith to be alive.

여러분들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게 되면, 그 몸은 죽은 몸입니다.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몸입니다. 역시 신앙도 그러합니다. 만약 신앙이 행위와 함께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살아 있는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신앙은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혀 유익이 없습니다. 죽은 신앙은 아무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살아있는 신앙, 살아계신 주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내 삶속에서 행위로 나타나야 하며, 그래야 내가 진정 믿고 있는 것들이 진실하게 드러나며 내가 믿는 것들이 올바르게 나타납니다. 행위와 함께 나타나는 신앙만이 살아서 역사하는 신앙입니다.

Therefore, let us examine ourselves to see if we are in the faith, the true faith that saves. Not just the verbalizing of the Apostle's Creed. I believe but the actions of my life being in harmony with it.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신앙 안에서 거하는가를 보려면 우리 자신을 시험해보면 됩니다.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내 삶속에서의 행위가 나의 믿음과 서로 부합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Father, help us that we might indeed be doers of the word and not hearers only. That we might not just affirm a belief but may we demonstrate that belief by the attitudes and actions of our lives. Lord, help us not to be deceived. In Jesus' name, Amen.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사 말씀을 행하게 하시고 그저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저 머무르기만 하는 신앙이 아닌 살아서 움직이는 믿음을 보여주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진실하게 하소서. 속이지 않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May the Lord bless you and guide you as you go this week. As you face the many temptations, may the Lord give you strength and may you walk and live after the Spirit. And may you respond after the Spirit. In the temptation may you not yield to the flesh and react after the flesh. May your life be pleasing unto God, as our actions come into harmony with our declarations of what we believe. May we show it in the works that we do. In Jesus' name.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이번주간에도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유혹들을 만나고 시련을 당해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사 그 길을 성령을 좇아서 행하기를 원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유혹가운데서도 육신을 좇아서 행하지 않고 오직 성령을 좇아서 행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러지기를 원하며 우리의 행위 역시 우리가 믿는바 대로 그 신앙과 함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에 이러한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